

‘국산 목재 활용’ 탄소중립 실천

장수군, 국산 목재 이용 확대·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친환경 목재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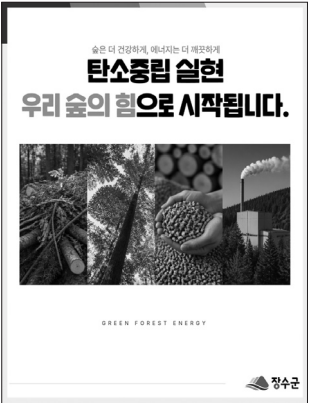
장수군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산 목재 활용 확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건축물과 가구 등 다양한 목재 제품으로 활용하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목재는 플라스틱과 철근·콘크리트 등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

군은 숲가꾸기와 벌채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해마다 취약계층의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과 산림휴양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정비할 때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화동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자연 소품 만들기 등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와 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 펄릿과 칩으로 가공해 난방·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정우 장수부군수는 “국산 목재 이용은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라며 “국산 목재와 목재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 목재 이용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6월 29일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탄력

무주군,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경부가 주관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일원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택과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원을 확대 보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부 보급사업이다.

무주군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48억여원을 투입해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 지역에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총 406곳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무주읍을 비롯해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등 6개 읍·면 1,000여 곳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 가위박물관, 휴게소에서 만나는 세계 가위 전시

진안군 가위박물관은 오는 9월 3일 까지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 2층 전람대 전시공간에서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길 위에서 만난, 진안가위박물관’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사)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9개 지역박물관이 함께하는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알리고,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가위는 풀어내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찬란한 시작과 연결성의 도구로서 새 생명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땃줄을 자



르고, 새로운 길이나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라본을 잘라내듯 ‘새로운 출발’의 첫 페이지를 여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상징을 바탕으로 가위가 풀어온 그 의미를 알리고 세계 회귀 가위를 전시한다.

전시와 함께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과수원에 나무 상처 보호용 바르는 약 공급

무주군이 사과와 배 과수원의 과수 화상병 전염원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물품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은 과수나무 전정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병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총 1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1,000ha 규모의 과수원에 나무 상처 보호용 바르는 약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과 또는 배 농업경영

체로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무주군에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별 작목반 대표나 마을 이장이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주군은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11월에 작목반과 마을 단위로 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개최

진안군은 18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훈련으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진안군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기구 창설훈련, 기관 소산·이동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도상연습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시행한다.

전춘성 군수는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킁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



진안군은 18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록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 수천휴게소 시범 운영

진안군 용담호변의 유희 시설이었던 수천휴게소가 새로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진안군은 사업비 19억 8,500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자원공사 공모사업비 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한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수천휴게소 시설개선사업’의 시설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위탁운영

자를 선정하여 8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천휴게소는 기존의 노후화된 유희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친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주소는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42-24이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작동 상태, 방문객 동선, 반려동물 편의시설, 서비스 대응 체계 등을 점검·보완한 후 정식 개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소방서, 을지연습 비상근무 체제 본격 돌입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 비상근무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법정부 차원의 훈련이다.

장수소방서는 이번 연습 기간 동안 24시간 소방 상황반을 가동하며 강도 높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및 각종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경·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굳건히 다져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지현 서장은 “을지연습은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장수군민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직장인의 건강한 꿈 찾아드림 프로그램 성료

장수군은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직장인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운영한 ‘직장인의 건강한 꿈 찾아드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직장인들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6월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실과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

센터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과 대사 관련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일대일 개별 건강상담을 제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적합한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